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로 참가한 국내외 청년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5월 12일 해단까지 약 1달여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SNS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등회를 홍보하는 활동을 맡게 된다.


조심조심 연등을 만드는 서포터즈의 모습.


광화문 플래시몹을 위한 율동연습이 흥겹다.


서포터즈가 LED연등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Make a nice LLF together!!”

〈연등회:Lotus lantern Festival〉

연등회보존회, 글로벌 서포터즈 교육 현장

60여 서포터즈 불교문화 체험
직장인 등 자발적으로 동참해
한국문화 · 불교 알리는 전법사로
“해외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것”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모든 시설에 불이 꺼진 늦은 저녁, 전통공연장 옆 공개 홀인 보현당에서는 환한 빛이 흘러나왔다.

60여 명의 국내외 시민들이 모여 직접 연등회 제등행렬에 가지고 갈 연등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한 잎 한 잎 정성 스럽게 붙인 연등이 빛을 발하는 순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보현당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연등 불빛 앞에서는 인종도 국적도 구분이 없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이하 보존회)는 4월 3일 2019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연데 이어 4월 10일 첫 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보현당에서의 연등 제작 실습과 광화문에서 펼칠 플래시몹 율동연습으로 진행됐다. 보존회가 준비한 햄버거로 저녁식사를 해결한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등만들기에 집중했다.

“준비된 랜턴 가운데에 연잎을 붙여주세요. 너무 촘촘하게 붙이면 불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8장씩 붙여주세요.”

서포터즈들은 안내를 맡은 국제포교사들의 지도 하에 테이블 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등을 만들었다. 약 1시간 가량이 지나자 서투른 솜씨지만 조금씩 연등의 형태를 갖춰갔다.

서포터즈 사이에서 ‘So beautiful’ ‘The light is really pretty’ 등의 찬사가 나왔다. 이날 교육을 받은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민족의 대표축제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단으로 2013년 첫 시작 이후 전세계 40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한국 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에 열심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마음을 모았다.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 까지 해외에서 40명, 국내에서 20명이 참여했다.

서포터즈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참여했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의학전공생을 비롯해 디지털 마케터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수년 째 참여하고 있는 이들부터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이 한국문화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연등회 서포터즈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 외국인 서포터즈들은 한국의 불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접할 것이라는데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온 데이브 우드(43) 씨는 2016년 연등회 서포터즈로 참여한 약혼자의 추천으로 서포터즈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우드 씨는 “캐나다에서도 사찰에서 불교를 조금 접하긴 했지만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불교 대표 문화 축제인 연등회에 참여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한국생활을 오래한 티티 씨는 올해로 4번째 참여다. 티티(29) 씨는 “한국문화에 큰 매력을 느낀다”며 “특히 연등회는 한국 전통을 이어오는 행사여서 서포터즈 참여에 자부심을 갖고 꼭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조금씩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내에는 이처럼 수차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새롭게 참여한 이들의 참여를 돕고 있었다.

홍승연 서포터즈 진행팀장은 “서포터즈 참가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라 생각해 매사 적극적이다. 교육 뿐만 아니라 행사 출석률도 매우 높다”며 “바쁜 와중에도 저녁마다 교육과 연습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들여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4회째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는 최윤진(26) 씨는 “서포터즈의 매력은 연등회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지난해 문화마당 부스 활동으로 시민 줄넘기 대회를 한 추억이 있다. 서포터즈가 끝나도 서로 연락을 하고 모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서포터즈에 참여한 황유정(25) 씨는 “인터넷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찾던 중 서포터즈 활동을 알게 됐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그동안 몰랐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쌓게 됐다. 내년에는 학교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3회 째 서포터즈 지원팀에 참여하고 있는 조진화 국제포교사는 “해마다 새로운 이들이 참여해 국제포교사로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글로벌 서포터즈는 1일 진관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 문화를 익혔다. 이들은 4월 17일 광화문 봉축장엄등 점등식에서 플래시몹 율동을 선보이며,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연등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활동을 공유하며 자국 및 세계인들에게 연등회를 알린다.

이어 5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후 서포터즈는 해단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선나 스님은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연등회를 알고 함께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민과 함께 하는
봉축점등식

일 시 불기 2563년 4월 28일 (일) 6PM
장 소 천년고찰 장안사 설법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주요행사 안내 문의 051)727-2393

6 PM
• 저녁예불 / 석가모니불정근 / 발원문 / 보현행원
• 봉행사 / 연등장학금수여식 / 봉축사
• 청량사 합창단 축가

7 PM
• 탑전 점등탑돌이
• 이후 설법전에서 장안사 제2회 사진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 주최 | 기장군불교연합회 및 연합신도회
| 주관 | 천년고찰 장안사 봉축위원회
| 동참후원 | 기장군 내 사찰 및 신도 일동
| 후원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및 교계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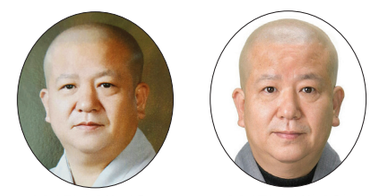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